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59.35	▲ 코스닥	709.77
	(+8.22)		(+13.72)
▼ 금리 (미국 9년)	3.472	▲ 환율 (원·달러)	1246.20
	(-0.084)		(+1.50)

[입국제한 후폭풍]
중, 규제보복 첫 타기에
경제적 의존도 높은 韓
04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수요둔화 정면돌파 車업계 ‘신차’ 빅뱅

국산차, 내수·수출 동반성장 노력
현대차 ‘코나’ 완전변경 모델 출시
쌍용차 ‘토레스’ 전기차 버전 예고

수입차, 국내 점유율 확대 총력전
벤츠, 대형 SUV 전기차 앞세워

연초부터 자동차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떨어진 점유
율을 높이고 수입차는 늘어나는 점유
율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신차 라인업
확대와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 등 트랜
드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
맞추기에 집중하고 있다. 중형 세단에
서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
는 SUV와 친환경차 등 다양한 차량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입지 좁아진 국산차…신차로 내수·
수출 잡는다

국내 완성차 마형인 현대차는 1분기
코나의 완전변경 모델을 출시한다. 코
나EV의 경우 E-GMP 기술력을 담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어 하반기에 부
분변경모델도 출시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7세대로 돌아온 아반떼가 새로
운 디자인이 기대를 모은다. 3분기에
는 쏘나타가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온
다. 2018년 이후 약 5년 만에 5세대 모
델이 나온다. 풀체인지 모델인 만큼 디
자일부터 현대차의 SUV헤리티지를

이어갈 새로운 모델로의 등장이 기대
를 모은다. 아이오닉5의 N브랜드 모델
도 기대를 모으는 신차 중 하나다. 현대
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을 달고 등장하
는 첫 전기차인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또
국내 최장수 모델인 ‘쏘나타’는 부분변
경으로 돌아오지만 디자인에서는 완전
변경 모델에 가까운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쏘나타는 국내 출시 후 국민 세
단이라는 명성을 확보했지만 8세대 모
델이 디자인 흑평을 받으며 위기를 맞
았다.

기아에서는 기존에 없던 신차 EV9
을 2분기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
V9은 기아에서 출시되는 E-GMP SU
V다. 콘셉트카 시절부터 큰 관심을 모
았던 만큼 등장과 함께 시장에 새로운
기록도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이 외에도 레이EV와 쏘렌토 부분
변경 모델도 출시 대기 중이다.

제네시스는 올 하반기 SUV GV80
의 쿠페형 모델 GV80 쿠페를 선보일
예정이다. 쿠페형 SUV는 일반 SUV와
비교하면 지붕 라인이 뒤쪽에서 날렵
하게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고 SUV임
에도 스포티한 감성을 살릴 수 있다. 또
제네시스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기
능을 탑재한 ‘G90’을 선보인다.

쌍용차는 올해 하반기 토레스의 전
기차 버전인 U100의 등장도 예고되고
있다. 쌍용차는 2021년 중국 전기차 기



설 앞두고 분주한 가락시장

설 명절을 앞둔 11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
시장에서 관계자들이 선물 및 제수용 과일 및 채소 상차
를 옮기고 있다. /뉴시스

업비야디(BYD)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U100에 탑재할 배터리를 함
께 개발하기로 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력을 보유한 BYD와의 협
업을 통해 개발된 모델인 만큼 기존 코
란도 이모션과는 다름을 보여줄 것으
로 기대된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됐던 GMC를 올해 1분기에 출시
하고 브랜드 첫차로 시에라를 등반시
킬 예정이다. 시에나는 픽업트럭으로

5m를 넘는 전장의 초대형 픽업트럭이
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내수와 수출을 건
인할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신
차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이 모델은
창원공장에서 생산되기 위해 준비 중이
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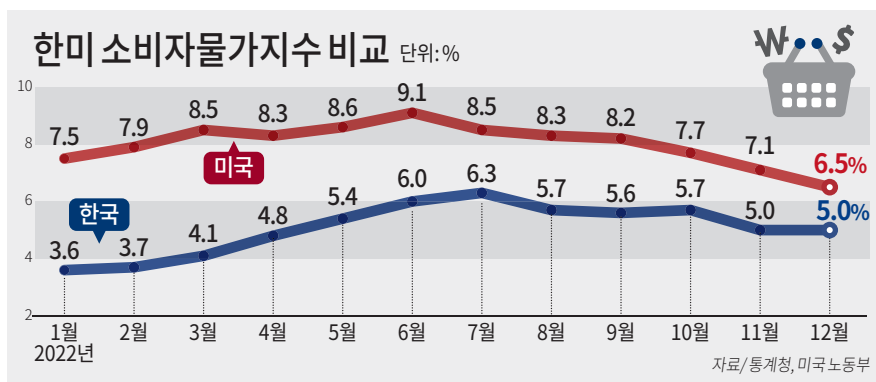
파월, 추가 긴축의지 확인… 韓美 금리 1.5%p 벌어지나

“물가안정 위해 인기없는 결정”
美 연준 이달 말 베이비스텝 전망

“물가안정을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
과 같은 인기 없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제품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중
앙은행 주최 심포지엄에 참석해 “물가
안정은 건전한 경제의 기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가파른 금리인상이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물
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은 불가피 하
다는 설명이다.

◆美 연준, 이달 말 0.25%p 인상 전망
현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는 11월 기준 7.1%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2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전
월보다 0.06%포인트(p) 낮은 6.5%로
예상된다.

임금상승률도 둔화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상황을 보면
비농업 민간일자리의 시간당 평균임금

은 전년 대비 4.6% 상승한 것으로 집계
됐다. 2021년 5%대에서 지난해 10~11
월 4.8%대로 떨어진 뒤 한차례 더 내려
온 것이다. 물가와 임금이 서로를 자극
하며 연쇄 상승하는 순환이 그치고 있
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는 당분
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파월 의장은
“연준의 결정에는 직접적, 정치적 통제
가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며 “최대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해 통화정책을 활용하
겠다”고 했다. 미국 연준의 목표 소비자
물가지수는 2%대다. 2%에 근접할 때
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
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
C)에서 금리를 0.25%p 올릴 것으로 예
상한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
4.5% 수준이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모더나 CEO, 백신 인상 예고
1회당 110~130달러 책정 고려
화이자 상반기 4배 인상 가능성
국내 수입 부담 커져 대책 시급

모더나측은 “코로나19 백신 가격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여전히 논의 중
이지만 모더나는 이 백신이 환자, 의료
시스템 및 사회에 제공하는 가치를 반
영하는 가격 책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이자 역시 지난 해 10월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110~130 달러로 올릴 것
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
부가 화이자 1회 분량에 26~30달러를
지불한 것을 감안하면 약 4배가 넘는
인상폭이다. 가격 인상은 이르면 상반
기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화이자측은 “정부와 계약한 공급 물
량이 얼마나 빨리 고갈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해 1분기까지는 가격 인
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다”고 말했다.

백신 가격 인상은 미국 내에서도 거
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백신 개발 자금으로 17억 달러를 투입
했고, 그동안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 만
큼 가격 인상 조치는 이기적이란 지적
이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le@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키맨’ 김성태 체포… 관심 쏠리는 이
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 민주당 ‘尹정부 10차 전력수급계획 철회
·원점 재검토’ 촉구 /사진 뉴시스

▲ 여야, 정개특위 논의 첫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공감
▲ 전반기 연합연습 쉬지 않고 11일간 진
행… 역대 최장규모 훈련



▲ 윤건영, 이재명 檢출석 지도부 동행
“李 지킨다는 취지… 선택 문제”
▲ 원희룡 한·미 합작 ‘오버에어’ 방문…
UAM 기술협력 사항 논의 /사진 뉴시스